

“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전북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 창립 2주년 맞아 회원기업 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가 창립 2주년을 맞아 회원기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다시금 힘차게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이고 따뜻한 지원을 통해 척박한 기업 환경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는 간절한 구호로 출범한 도민회는 지역 중소기업인의 팍팍함과 열정이 모여 만들어졌다. 그동안 기업사랑도민회는 금융지원 컨설팅, 기업사랑 리더스 포럼, 회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채롭고 실질적인 사업

으로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분과위원회와 동호회를 통한 교류 활동도 활발히 펼쳐지며, 회원기업 간의 끈끈한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냈다.

올 하반기 도민회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단순한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경영진단과 AI 시대에 맞는 혁신 전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컨설팅을 제공해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

력 체계를 강화해 회원기업들이 보다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사랑 리더스 포럼도 한층 더 힘있게 추진된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실용적인 강연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상담하고 토론하는 열린 장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세무·노무·법무 등 경영 현장에서 절실한 전문 컨설팅 시스템도 촘촘히 갖춰,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마련한다.

회원기업 간 협력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교류와 상생의 구심점으로 일원

화해, 벤치마킹을 통한 모범적 협력 모델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윤방섭 회장은 “지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라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단합한다면 반드시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기업사랑도민회가 그 길에 함께 서겠다”고 굳건히 다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전북 기업사랑도민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구본부, ‘바이오 투자 자문단’ 공식 출범

전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투자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3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국가특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본부와 함께 ‘전북 바이오 전문 투자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투자 생태계 강화를 향한 합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 출범한 바이오 전문 투자자문단은 오라를 벤처투자 배후학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의학·약학·이학 등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전문 투자자 2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전북 지역 첨단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아,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북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자별 방향성을 공유하며 자문단의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북지역 유망기업 6곳(메리랜드, 페토바이오, 라파리드, 위트젠 바이오, 바이오드, 노보렉스)이 심층 IR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선보이며, 투자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자문단은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정기회의를 열어 기업 현황과 투자 수요를 점검하고, 분과 운영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과 특구 내 유치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단계별 성장에 맞는 투자사의 매칭을 지원해, 전북 바이오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 아파트 매매·전세가 모두 상승세... 전국 평균 웃돌아

조사결과... 9월 15일 기준 매매가 전주 대비 0.02% 상승·전세가격도 0.03%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15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상승, 전세가격도 0.03% 오르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과 서울이 상승을 주도했으나, 지방에서도 전북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0.04%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은 0.12%로 전주(0.09%)보다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0.01%로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시는 0.10% 상승 8개도는 0.00% 보합을 기록했다.

전북은 8개 도 가운데 매매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0.06% 올랐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주 덕진구 0.15% 완산구 0.11% 정읍 0.08% 등 주요 도

시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역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과 익산은 각각 -0.03% -0.01%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주와 김제, 남원 등 다른 지역 상승폭에 힘입어 전북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전세시장에서도 전북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전북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는 각각 0.10% 상승하며 8개 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읍시 0.04% 남원시 0.01% 등도 상승하며 전북 전체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0.03%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북은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매매와 전세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북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북 성동구 0.41%, 마포구 0.28%, 광진구 0.25% 등 주요 학군지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강남권 서초구 0.17%, 송파구 0.19% 등은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경기 지역은 0.01% 상승하며 보합에서 소폭 상승으로 전환됐다. 인천은 전체 0.00%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0.05%)과 충북(0.03%)이 소폭 상승한 반면, 대구(-0.05%), 대전(-0.04%), 전남(-0.04%),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세종시는 새롬·다정동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0.10%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오상근 기자

스마트폰으로 ‘찰칵’... 전개공, 전직원 대상 보도사진 촬영 실습교육

쉽고 간편한 촬영 노하우 전수

전북개발공사가 임직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들었다.

공사는 23일, 본사 1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보도사진 A to Z’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도자료 작성 시 늘 부담이 되어온 사진 촬영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



디서든 고품질의 보도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강의는 유영석 전북사진기자협회 간사가 맡았다.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과 촬영법, 상황별 촬영 기초, 공

공기관 보도자료 사진의 우수 사례 분석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했다.

이어 진행된 모의 촬영 실습에서는 직원들이 실제 업무 현장을 가정해 직접 촬영을 시도했고, 강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촬영 기술을 습득했다.

특히 실습 시간에는 직원들의 집중도와 호응이 높았다. 참가자들은 “박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보도사진 촬영이 의외로 쉽고 재미있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길 위의 정원, 자연이 숨 쉬는 공간’

도로공사, 2025 정원박람회 개최... 전주수목원서 28일까지

전주의 가을 하늘 아래 조록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2025 정원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길 위의 정원, 자연이 숨 쉬는 공간’으로 시민과 가족 모두가 자연의 품에서 휴식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5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6개 작품과 전주시 시민정원사(초록정원사)가 함께 손길을 더한 참여형 정원 2개 작품이 공개된다. 지난 8월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이들 작품은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내년 9월까지 1년간 전시돼 시민들에게 오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주수목원 곳곳

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체널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수목원 풍경을 화폭에 담은 그림 그리기 행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스텝 투어, 그리고 길 위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 공모전 전시회가 준비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또한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원용품 직거래 장터 ‘파머스 가든’이 열려 실속 있는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자연을 느끼고 문화를 즐기며 안전의 중요성까지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철 한국도로공사 시설차장은 “아름다운 전주수목원의 풍경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정원박람회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상근기자

현장 목소리 담은 실질 지원 다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위기 극복 3분기 FGI협의체 개최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과의 동행에 발 벗고 나섰다.

23일, 전주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3분기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협의체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3분기 위기 징후 모니터링 결과 ‘주요’ 단계로 분류된 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확보 난항,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 일부 기업은 신사업 전환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토로하며,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환 단장은 “이번 FGI협의체는 기업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



는 소중한 현장 ‘창구’라며,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성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부터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기별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이 회복력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의 파고가 거세지만, 전북테크노파크와 지역 중소기업들의 굳건한 연대가 새로운 돌파구와 희망의 길을 열어갈지 기대가 모인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